

배포일시	2021. 2. 2.(화) 17:30 (총 4매)	보도시점	즉시
담당부서	대전지방기상청 예보과	담당자	과장 유용규 전문관 박찬귀
		전화번호	042-363-3527

3일 저녁~4일 새벽, 충남내륙 중심 많은 눈

- 3일 저녁~4일 새벽, 충남내륙 많은 눈, 충남남부서해안 눈/비
 - 예상 적설: 충남권 1~5cm
 - 충남권 곳곳 빙판길, 3일 퇴근길~4일 출근길 교통안전 유의



[2월 3일(수) 밤 예상기압계 모식도]

- 대전지방기상청(청장 박훈)은 3일(수) 저녁~4일(목) 새벽에 충남권 대부분 지역에 눈 또는 비가 예상되고, 특히 충남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다고, 출·퇴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다.

[기압계 전망]

- 대전지방기상청은 3일(수) 저녁~4일(목) 새벽 제주도 남쪽해상을 지나고 고기압과 중국 북부지역에서 다가오는 고기압 사이에서 강수 구름대를 동반한 저기압이 발달하고, 이 저기압이 우리나라 북쪽을 통과하면서 충남권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였다.
- 2일 현재 우리나라 내륙을 중심으로 차가운 공기가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,
- 3일 저녁에 서해북부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과 남쪽 해상에 위치하는 고기압 사이로 ① 온화하고 습윤한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강수 구름대가 발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.
- 밤 동안에 저기압이 우리나라 북쪽을 이동함에 따라 ② 저기압 북서쪽의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강수 구름대의 강도가 더욱 강해지겠다고,
- 이후 찬 공기에 밀리는 눈구름대가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충남 북부에 눈이 시작되어 새벽까지 충남권 전역에 순차적으로 눈 또는 비가 내린다는 설명이다.

[강수 전망]

- 저기압에 동반된 구름대가 우리나라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3일(수) 저녁(18~21시) 충남북부서해안에 눈이 시작되겠고, 밤(21~24시)에 그 밖의 충남권으로 눈이 확대되어 모레(4일) 새벽(03~06시)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.
- 충남서해안의 경우 저기압 남쪽에서 유입되는 온화한 공기에 의해 지면 부근의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면서 일시적으로 눈 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분석하였다.
- 눈 구름대가 북쪽에서부터 강하게 발달하여 이동하면서 **충남내륙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,**
 - 특히, 늦은 밤에는 찬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눈의 강도가 더욱 강해지겠고, 이 영향으로 1~2시간 동안 적설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였다.

< 예상 적설/예상 강수량 >

- (3일 저녁(18시)부터 4일 새벽(06시) 사이) **충남권: 1~5cm/5~10mm**

- 대전지방기상청은 “3일 밤부터는 눈의 강도가 강해지는 만큼 퇴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”면서,
 - 4일 새벽~아침에는 저기압 북서쪽에서 뒤따라 들어오는 찬 공기에 의해 쌓인 눈이 녹지 않거나 비가 얼어붙어 빙판길이 될 가능성이 높아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.

- 또한, 이번 강수 예보의 관건은 1~2℃ 가량 미세하게 변화하는 지상 부근의 기온과 이로 인해 달라지는 강수 시작 시점에서의 눈·비 형태라면서,
 - 강수 구름대가 유입되기 전에 낮 기온이 다소 오를 경우 충남 서해안과 고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눈 또는 비로 먼저 시작되면 적설이 적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.
 - 하지만, 이 경우에도 뒤따라 유입되는 찬 공기로 인해 늦은 밤에는 눈으로 바뀌어 내리면서 도로에 얼어붙을 수 있는 만큼 교통안전에 계속 유의할 것을 권고했다.
 - 이러한 변동성에 대비하여 지상 및 대기 하부(700~800m 상공)의 기온 변화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, 서쪽에서 구름대가 다가오는 **3일 낮부터는 강수의 시작 시점과 형태에 대한 최신의 기상정보를 발표**하겠다고, 이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.

- 이후 당분간은 우리나라의 높은 상공에 자리 잡는 온화한 공기에 의해 이번 주말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였다.